

#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 희망의 노래 주는 완전합니다 /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같이
대표기도		최효은
*성경봉독	요 21:15-17	유준상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예수 예수 예수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 응답찬양

###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요 21:15-17)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니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터치가 되는 스토리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은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보며 감동하고, 또, 그분의 성품에 매료가 되시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두 가지 모습을 통해 주님의 진면목을 알고, 그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첫번째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자비란 어려운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며, 긍휼은 가엾게 여겨서 돕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긍휼(Mercy)은 죄있는 자를 가엾게 여겨 죄를 사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주 대상은 세상에서 소외받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듯 가끔 그들 필요 챙겨주는 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영혼까지 풍성해지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런 분은 우리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소위, '메이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면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면 축복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은 이 마음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예수님" 이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신 장면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앗수르의 혼혈정책으로 만들어진 혼혈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은 말바닥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이미 다섯 번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기준으로 봐도 가장 심각한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 가십니다. 주님은 물을 기는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녀가 관심을 보이지, 그녀의 평생 수치인 '남편'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정죄하심이 아니라 공감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에게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격려하십니다. 이 말을 전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를 통해 그녀는 평생의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 눈초리를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중언이 되었습니다.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나병환자가 있습니다. 나병은 발병 즉시 제사장에 의해 진단받습니다. 나병으로 진단받으면 자연치유되기 전에는 평생 격리되어 살아야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괴로움의 삶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그의 나병이 온 몸에 있었다고 의학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한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돌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해야 가능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지막하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니 깨끗함 받으라" 라고 말하였고, 그 순간 그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이전에, 그에게 손을 내밀어 문둥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 손길은 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가 겪었던 외로움과 서러움에 대한 공감과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나병에 걸린 이후로 어느 누구로부터도 자기 몸을 터치해 준 경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평생 예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따스한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 함께 가차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 가룟유다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의 발까지 닦아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주님은 가룟유다를 생각하시며 그 심령이 너무 괴로워하셨다고 나옵니다. 왜 그렇게 괴로우셨을까요? 단지, 그가 자신을 팔 것 때문이라면, 굳이 예수님은 그의 발을 닦아줄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가룟유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가룟유다였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 두었습니다. 결국, 그가 죄의 길을 택할 것과, 어떻게 그 생을 마감할 지를 아신 예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이 마음은 마태복음 26:24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화를 받는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면 좋았을 걸!" 탄식하시는 주님의 관심은 자신의 십자가가 아니라, 유다의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가룟유다와는 다른 종류의 실망감을 예수님께 안겨 주었습니다. 그는 수제자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함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를 찾아 가셨을 때 모습을 보면, 오직 베드로를 세우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심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섭섭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 말씀산책

예수님의 용서는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초월적 용서입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큰 죄를 지은 사람 일지라도, 그가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의 용서와 긍휼은 열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받았고, 가룟유다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초월적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다만 닳고 싶습니다. 너무나 고결한 모습입니다.

이 분께 나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이 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원하십니까? 용서와 긍휼의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세상에 다시 없는 멋진 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 나눔을 위한 질문

1. 네 장면 (수가성 여인, 나병환자, 가룟유다, 베드로) 중 내게 가장 마음을 터치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2. 여러번 버전의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언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셨나요?
3. 이 예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기 원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나눠주세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방문과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파송찬양

###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닦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 광고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대일 양육 훈련 동반자 모집

문의 : 추재욱/ 이순희 집사 (soonhoe.lee@gmail.com)

## 2023년 드림키즈 써머캠프 교사 지원

캠프기간 : 7월 10일~28일(3주간)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 문의 : 정지혜 집사 (jeehye518@gmail.com)

## 중보기도학교

일시 : 27일(토), 오후 2시, 2층 청년부 예배실

## 음악부 광고

주님께 영광 올리고 함께 믿음으로 섬길 찬양대 지휘자 찾습니다.  
접수기간 : 5/1~5/31  
문의 : akpc-music@akpc.org

## 팀원 모집

기획팀 - 행사 기획등을 도와주실 분 (문의: 정재인)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오은비)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문의: 조학영)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정호)



청년부팀 신청 QR

## 지체동정

이보배 (결혼, 5월 27일)

#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 양육과정안내

###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